

## S#1. 실외/ 버스 정류장/ 낮

따뜻한 날씨, 포장마차 옆 한적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과 포장마차에서 무언가를 사먹는 사람들. 품에 인형 하나를 들고 가방을 맨 한 소녀(7세, 여)가 벤치에 앉아있다. 소녀의 엄마로 보이는 중년 여자(35세, 여)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어라 속삭이며 소녀의 가방에 지폐와 동전 몇개를 넣어준다.

중년 여자  
괜찮을 거야.

어느새 눈가가 축축해진 중년 여자는 일어나서 소녀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진다. 중년 여자는 곧 버스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소녀를 떠나 버스 쪽으로 걸어간다. 그러다 소녀가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는 중년 여자.

소녀  
엄마, 나 데리러 올거지?

중년 여자는 터져나올 것만 같은 눈물을 간신히 누르며, 대답 없이 버스에 올라탄다. 곧 버스가 떠나고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소녀.

## S#2. 실외/ 버스 정류장/ 밤

밤으로 매치 컷.  
소녀는 여전히 버려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다. 추운 밤 공기. 몇몇 사람들이 포장마차 앞에서 따뜻한 어묵국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소녀. 그러다 소녀는 포장마차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 바닥에 의심스럽게 앉아 무언가를(여권을) 불태우려고 하는 한 남자(불법 이민자)를 발견한다. 곧 여권에 불이 붙고, 남자는 불 붙은 여권을 땅바닥에 내려놓는다. 소녀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가며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 위에 손을 댄다. 소녀를 보고 겁이난 남자는 즉시 발로 불을 끈다. 겁에 질린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황급히 일어나는 남자.

남자  
It is cold.

자리를 떠나며 근처 포장마차 쪽으로 가는 남자. 포장마차 주인에게 손짓을 하며 음식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돈이 없는 남자. 그런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소녀. 이내 포장마차 주인이 남자에게 귀찮게하지 말라고 말하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정류장의 낡은 벤치에 가 앉는다. 남자는 지갑에서 뭐라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소녀.

cut to

## S#3. 실외/ 포장마차/ 밤

소녀는 포장마차로 가서 엄마가 가방에 넣어주었던 돈을 꺼낸다. 봉어빵 한 봉지를 사는 소녀.

## S#4. 실외/ 포장마차/ 밤

남자는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듯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봉어빵 하나를 건넨다. 그리고 자신도 남자의 옆에 앉아 봉어빵을 먹는다. 남자는 놀라고 어색한 듯 소녀를 바라보다가 봉어빵을 와구와구 먹어치운다. 그리고 남자는 곧 소녀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입을 떼는 남자.

남자

What's your name?

Mummy, papa, where?

소녀는 그를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소녀는 남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듯 하다. 남아시아 남자는 한숨을 쉬고, 소녀의 손에 들린 봉투를 가져가서 봉어빵 하나를 더 꺼내어 먹는다. 봉어빵이 든 봉투를 다시 소녀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자. 그는 말없이 소녀의 곁을 떠난다.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소녀.

**S#5** 실외/ 길/ 밤

천천히 길을 걷던 남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낀다. 뒤를 돌아본 남자는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소녀를 발견하고 놀라 멈춘다.

남자

You go there. (한 곳을 가리키며)

Mummy, papa, waiting...Go!

소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남자는 계속 길을 걷고 소녀도 그 뒤를 따라 계속 걷는다. 남자는 곧 인내심을 잃고 뒤를 돌아 소녀에게 소리친다.

남자

I tell you to go there...Why you come behind me?

(잠시 멈췄다, 더 큰 목소리로) Go now!

소녀에 입가에 있던 미소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어느새 눈에 눈물이 맺힌 소녀. 남자가 멀어지고,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다.

**S#6** 실외/ 길 끝/ 밤

계속 길을 가던 남자는 갑자기 멈추어서 나무 뒤에 숨는다. 그는 경찰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내 그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기 시작한다. 거의 뛰는 것과 비슷하다.

**S#7** 실외/ 버스 정류장/ 밤

남자는 숨을 헉헉대며 아까 그 버스 정류장에 다다른다. 주위는 더 조용해졌고 아무도 없이 포장마차 주인만 있다. 그는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한다. 남자는 벤치로 가서 소녀 옆에 앉는다.

남자(영어로)

It is late! Why you here!

소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이에 조용히 있는 남자. 그러다 어느새 입을 떼서 말을 하는 소녀.

소녀  
(눈을 비비며) 나 졸려...

남자는 소녀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것과 처음 듣는 소녀의 목소리에 놀란다. 남자는 곧 신나서 목소리가 커진다.

남자  
You sleepy?

소녀  
...

남자는 소녀를 보고 미소를 짓는다.

남자(영어로)  
침대가 필요해? 내가 침대 만들어 줄게.

남자는 자신의 겹옷을 벗더니 벤치에 펼쳐놓는다. 그리고 자신의 목도리를 접어 베개로 만든다.

남자  
봐, 침대지?

소녀는 웃으며 그 위에 눕는다. 남자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녀가 잘 수 있도록 해준다. 한참 뒤에 남자는 입을 연다.

남자(영어로)  
우리 딸도 딱 너 나인데.

소녀  
딸? 어딴어요?

남자(영어로)  
여기로 올 때...(정적)  
(자신의 나라 언어로 말한다) Hum log jis kashti mein arahe thayy... Wo kashti doob  
gai...  
(긴 정적) Wo mar gai... Mein bach gaya!

남자는 말을 멈춘다.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의 입가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진다. 그는 눈물을 슬쩍 닦고는 다시 미소를 짓는다.

남자(영어로)  
(눈물을 닦으며) 괜찮아. 그 아이는 더 좋은 곳에 있어.

남자가 말을 끝내자 잠들어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 남자는 소녀를 자신의 자켓으로 감싸고 소녀를 자신의 품으로 안아올린다.

**S#8** 실외/ 파출소 부근/ 밤

남자는 소녀를 안은 채 파출소 근처를 지나간다. 경찰관 한명이 손전등을 남자의 얼굴에 비추려고하지만 남자는 얼굴을 피한다.

남자

그러지 마세요. 제 딸이 자고 있어요.

경찰은 남자를 잠시보더니 남자의 품에 안긴 채 잠든 소녀의 발 쪽을 손전등으로 비춘다. 그리고 손전등을 남자의 얼굴에 비춘다. 남자는 긴장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

남자

제 아내...(멈춤) 한국인이예요.

경찰관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자를 바라본다. 경찰은 남자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와 그를 보려고한다. 그때, 소녀가 잠에서 깬다.

소녀(영어로)

Papa, can we go home? I want to sleep. (아빠, 우리 집에 가면 안돼? 나 졸려.)

남자(영어로)

응, 지금 가자. 아빠 경찰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어.  
(경찰에게) 저희 가도 되나요?

경찰은 남자를 잠시쳐다보고, 소리친다.

경찰관(한국어로)

보내줘.

남자는 파출소를 지나간다. 파출소가 점점 시야에서 사라진다. 계속해서 길을 걷는 남자.

**S#9** 실외/ 공원 벤치/ 새벽

남자는 공원 벤치에 다다른다. 소녀는 잠에 들어있다. 남자는 소녀의 인형을 소녀의 머리 밑에 깔아준다. 그때 소녀의 가방에서 지폐와 동전이 몇개 떨어진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본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목에 목도리를 맨다. 남자는 일어서서 잠든 소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본다.

**S#10** 실외/ 포장마차/ 아침

아침이 되고, 남자는 소녀의 가방을 맨 채 포장마차 앞으로 간다. 남자는 자신의 손에 놓인 동전들을 세어본다. 남자는 포장마차 앞에서 멈추고는 자신이 알아볼 수 없는 한국어 메뉴판을 쳐다본다. 그는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두개를 주문한다. 음식을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뒤를 돌아, 어제 만났던 경찰관이 있다. 경찰관은 남자가 소녀의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S#11 실외/ 공원 벤치/ 낮**

소녀는 새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다. 공원은 어느새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날은 이미 오후쯤이 되었다. 소녀는 자신이 인형을 베고 있는 것과 자신의 가방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다. 또한 남자가 자신의 곁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소녀는 자신이 또 다시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는다.